

광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 전남은 교육력 높이기 역점

광주·전남 등 13곳 진보 교육감 석권...보편적 교육복지 탄력

광주·전남 교육은 안정 속에 지속적인 혁신이 진행됐다. 혁신학교가 확대 운영되고, 친환경 무상 급식도 고교까지 확대된다. 미래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력 제고 시스템도 구축된다.

이들 공약은 과거보다 크게 힘을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중 13곳의 교육감이 진보성향으로 동일한 공약을 내세웠기 때문이다. 이들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을 통해 교육 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5일 “진보성향

의 교육감이 17개 시·도 중 13곳에서 당선됐다”면서 “공동공약인 혁신학교 확대와 고교 무상 급식 등 보편적 교육복지는 크게 진전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교육의 가장 큰 변화는 내년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이다. 자유학기제는 수업과 평가 방식이 바뀌고, 체험활동이 많아져 쉽게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전남교육은 ‘개천에서 용 난다’는 속담을 실현한다는 게 목표다. 열악한 교육환경을 뛰어넘어 당당한 대한민국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력을 끌어올리겠다는

혁신학교 확대·高 무상급식

공동공약 시행 놓고

교육부와 갈등 예고

것이다.

◇광주, 자유학기제 전면 시행=자유학기제는 ‘입시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고 키워야 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중학교 한 학기동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보지 않고 다양한 진로탐색을 통해 꿈을 찾자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교육정책이지만, 장휘국 교육감의 교

육철학과도 일치해 광주시교육청은 적극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 동신중·서석중·선운중 등 3개 학교에서 시범 실시한 데 이어, 올해 화정중·운암중 등 15개 학교가 추가 지정돼 운영된다. 내년에는 광주지역 전체 중학교 88개교에서 전면 시행하게 된다. 정부 계획(2016년)보다 1년 앞선 전면 실시다.

광주시교육청은 이를 위해 ‘광주형 자유학기제’ 모형 구축을 위한 태스크포스트를 운영하고 있다.

광주형 자유학기제는 평가방식의 변화뿐만 아니라 수업 혁신에 특징이 있다. 또 체험활동도 진로뿐만 아니라 민주인권과

문화예술체험도 더해 광주만의 특색있는 체험활동을 진행할 방침이다.

자유학기제의 체계적 운영을 위해 진로진학교육원도 건립할 계획이다.

◇전남, 교육력 제고에 전력=장만채 교육감은 교육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교육력을 높여야 전남 아이들의 학습 능력이 올라가고, 훌륭한 대한민국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다는 것이다.

장만채 교육감은 이날 전 직원이 참석한 월례조회에서 “직선 1기가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뒀다면, 2기에는 학생들의 교육력 제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미래 창조형 인재 육성을 위해 초·중·

고 독서토론수업을 정착할 계획이다. 이는 무지개학교에서 이룬 성과를 확대한다는 것이다. 또 전남진로교육원을 설립할 계획이다.

농어촌학교 통학문제 해결을 위한 ‘에듀-버스’ 사업과 무상급식, 학교운영지원비·수학여행비·체험학습비 지원 등 교육복지도 확대한다.

거점교육사업은 열매를 맺을 것으로 기대된다. 교사 인척 등 인프라 구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면서, 이제는 질 높은 수업 등 콘텐츠를 채워 일반고는 진학률을 높이고, 특성화고는 취업률을 높이는 성과를 남겨두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첫 시민운동가 출신 시장 맞는 광주시청

혁신·배려 리더십 큰 기대 관피아 해소 인사개혁 예고

시정 시민참여는 크게 늘듯

시민운동가인 윤장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가 광주시장에 당선되면서 민선 6기 광주시장의 대변역이 예고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을 맞이해야 할 광주시의 선거 후 첫날(5일) 분위기는 ‘기대반, 불안반’이었다.

우선 시 공무원들 사이에는 윤장현 당선자의 성향을 배려의 리더십으로 해석, 어떤 형태로든 기존 공직사회의 분위기가 혁신적으로 바뀔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었다.

시의 한 직원은 “시청 내 직원들 중 상당수가 공직사회의 변화를 바라고 있으며, 윤 당선자의 배려의 리더십에 대한 기대도 크다”고 말했다.

시정 안팎에서도 당선자가 시정 개편 이래 첫 시민운동가 출신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해줄 것 바라는 분위기가 있다. 또 윤 당선자가 이번 선거기간은 물론 평소에도 ‘수평적 인간관계, 수평적 리더십’을 기반으로 한 시민자치와 소통·혁신을 강조해온 만큼 시정 각 분야의 시민 참여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제상생위원회 운영 ▲100대 명품 강소기업과 미래형 먹거리 산업 육성 등을 내세우고 있다. 또 시민 쏠소리 위원회 구성 등도 약속한 상태다.

당선자에게 기대되는 부분은 민선 6기 시대의 고질적 병폐인 인사 분야 개혁이다.

우선 시민운동가 출신답게 민선 출범 이후 끊이지 않고 지적돼온 측근 인사와 퇴직 공무원이 산하 기관 수장으로 옮겨가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를 상당부분 없앨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부에서는 윤 당선자의 상태를 배려하는 스타일이 결단성·추진력 부족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하는 분석도 나온다. 그를 둘러싼 일부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과 행정경험이 없고 정치색만 짙은 정치인 등 측근들의 대규모 임명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결국 윤 당선자가 주먹을 감싸고 있는 선거캠프 인사들과 친노 인사, 새정치민주연합 관계자들의 입김에서 벗어나는 게 선결 과제다. 윤 당선자가 건강한 시민사회의 견제와 자신의 정치 철학을 시행정 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구현할 있는지 여부가 변화와 개혁의 핵심 키가 될 전망이다.

광주시의 정책방향도 시민자치를 중심으로 대폭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당선자는 시민과의 약속으로 ▲시민참여·자치광주시민위원회 구성 ▲주요정책 주민 의견 전수 조사 ▲광주인권위원회 구성 ▲좋은 일자리 1만개 창출 ▲노·사·민·정 경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동네 주민들의 당선 축하
윤장현 광주시장 당선자의 병원이 광주시 동구 아이안과 앞에 5일 오전 동네 주민일동 명의로 ‘윤장현 원장님 광주시장 당선 축하합니다’란 현수막이 내걸렸다. /최현배기자 choi@

낙선 시장도 재선 교육감도 선거 끝낸 현역들 업무 복귀

재선 또는 3선을 위해 치열한 선거전에 나섰던 광주·전남지역 현역 자치단체장과 시·도교육감들이 5일 업무에 복귀했다.

6·4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강운태 광주시장은 이날 곧바로 시장업무에 복귀한 뒤 정례회를 열고 “윤장현 당선자가 민선 6기를 차질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고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재선에 성공한 장휘국 광주시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교육감도 이날 오전 9시 직원 정례회를 시작으로 오전 내내 공식적인 업무 일정을 소화했다. 오후에는 장휘국 교육감은 5·18민주의지를 참배했으며,

장만채 교육감은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을 비공식적으로 방문해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

현역이 출마해 재선에 성공한 노희용 광주동구청장과 최영호 남구청장, 송광운 북구청장, 민형배 광산구청장 등도 복귀에 그동안 밀린 현안 사업들을 점검했으며, 전남지역 기초 자치단체장들도 민선 5기를 마무리하고, 민선 6기를 준비하는 공식 일정을 소화했다. 다만, 신안군은 박우량 신안군수가 최근 주수지를 서울로 옮기면서 군수직에서 자동 사퇴됨에 따라 부군수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강운태 “업무 인수인계 차질없게 챙길 것” 이용섭 “당선자 축하...시민으로 돌아갈 것”

두 후보의 아름다운 퇴장

어느 선거전보다 치열하게 펼쳐졌던 광주시장 선거가 끝나자 패배한 후보들이 승리한 후보에게 축하를 보내며 아름다운 퇴장을 해 눈길을 끌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5일 선거 패배를 확인한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당선의 영광을 안은 윤장현 당선자와 지지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아름다운 단일화를 이룩하고 끝까지 저를 도와주신 이용섭 동지와 그 지지자들에게도 특별한 감사와 위로를 드린다”며 “오늘 즉시 광주시장직에 복귀하여 윤장현

당선자가 민선 6기를 차질없이 인수할 수 있도록 업무를 챙기고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용섭 전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당선되신 분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뜻을 이루지 못한 분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선거과정에서 받은 아픔은 모래에 새겨 휘둘러 버리고, 고마움은 가슴에 새겨 평생 살아 나가겠다”며 “이제 평범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국민 속으로’ 들어가 그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대학교	순천청암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총장	총장	원장	조장	지사장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김일대	강암대	이의창	이광	윤석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환교	명교	용원	하협	군수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	순천대학교